

# 네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9.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7
IV. 국제신인도 .....	9
V. 종합의견 .....	1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 일반개황

면적	147천 Km <sup>2</sup>	G D P	194억 달러 (2012년)
인구	3,043만 명 (2013년 7월)	1 인 당 GDP	626달러 (2012년)
정치체제	공화제	통화단위	Nepalese Rupee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환율 (달러당)	85.2 (2012년 평균)

- 네팔은 인도 북부 지역과 중국 서남부 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의 80%가 아리안족이며 나머지는 티벳족 등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식언어는 네팔어로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고 있음.
- 네팔은 내륙국으로서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수력 자원이 풍부하며, 특히 북부 산악지대는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등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음.
- 공산주의 세력인 마오이스트와의 오랜 내전(1996~2006년),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 및 취약한 인프라 등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단계임.
- 네팔의 정치체제는 2008년까지 왕정체제를 유지했으나 국민투표에 의해 2008년 5월 공화제로 변경되었으며, 201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간 의견 불일치로 정국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와 네팔의 교역규모는 2012년 2,078만 달러를 기록하여 미미한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대 네팔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3년 6월 말 누계 기준 2,752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경제성장률	4.5	4.8	3.8	4.6	3.0
재정수지/GDP	-2.6	-0.8	-1.0	-0.6	3.7
소비자물가상승률	12.6	9.5	9.6	8.3	9.6

자료: IMF.

\* 회계연도: 7.16 ~ 7.15

#### □ 정치 불안, 인프라 미비 등으로 3~4%의 저성장 지속

- 네팔은 만성적인 전력 및 에너지 공급 부족, 정치 불안정, 인프라 및 제조업 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2008/09년 이후 3~4%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세계 최빈국 중 하나에 머무르고 있음.
- 2011/12년에는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 증가, 서비스산업 호황, 양호한 기상 조건에 따른 농업 생산량 증대 등으로 4.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12/2013년에는 적은 강수량 및 화학비료 부족 등으로 인한 농업 생산량 감소, 정치 불안정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둔화된 3.0%를 기록함.

#### □ 재정수지 적자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개혁 노력으로 개선 전망

- 네팔은 낮은 징세율 및 세수기반 취약에 따른 세수 부족과 석유제품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세무조사 확대, 납세절차 간편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재정수지 적자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2011/12년에는 정부의 투자지출 증가세 둔화 및 재정개혁에 따른 수입 확대 등으로 재정수지는 GDP 대비 -0.6%를 기록하여 적자폭이 전년 대비 다소 축소됨.

- 2012/13년에는 국회 해산에 따른 비정상적인 예산 운용으로 회계연도 시작 후 9개월이 지나서야 정식 예산이 편성된 바, 충분히 예산을 소진할 시간이 부족하여 GDP 대비 3.7%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함.

## □ 8% 이상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지속

- 네팔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2008/09년 이후 8% 이상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
- 2011/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농업 생산량 증가에 따른 식료품 가격 안정으로 전년 대비 다소 완화된 8.3%를 기록하였으나, 2012/13년에는 최대 교역대상국인 인도의 인플레이션과 네팔 루피화 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6%로 확대됨.
  - 네팔 루피화는 인도 루피화에 1.6:1의 비율로 페그(peg)되어 있으며, 최근 인도 루피화 가치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미 달러화 대비 네팔 루피화 환율도 2013년 8월 사상 최초로 1달러당 100루피 이상으로 상승함.

## 2. 경제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농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제조업 발전 미비

- 2012/13년 기준 농업이 GDP의 약 34%, 고용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도 농업 발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평지 부족, 원시적 농경법, 경작품종 한계, 관개시설 미비 등으로 농업생산성이 낮은 상태임.
-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제조업의 대부분이 설탕, 맥주, 의류 등 소비재산업 위주임.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잦은 파업과 노동분쟁,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특성 및 협소한 내수시장 등이 제조업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만성적인 전력 및 가스 부족, 노동 분규 등으로 인한 공장 가동 차질로 2012/13년 2차 산업 분야의 성장률은 1.5%에 그침.

## □ 원조자금 및 해외송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

- 네팔은 매년 총예산의 약 20%, 개발 예산의 약 70%를 원조자금에 의존하고 있음.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원조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 등은 네팔 정부에 원조자금 사용의 투명성, 집행의 효율성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해외근로자로부터의 송금 유입액이 GDP의 약 24% 수준으로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일상생활자금으로 소비되어 투자재원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해외근로자가 근무하는 국가의 경기침체에 국내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 일자리 부족과 경직된 노동법

- 신규 노동시장 진입인력(연 45만 명 수준)의 취업기회가 부족하여 매년 30만 명 내외가 해외취업을 택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 및 도시 지역의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
- 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경직된 노동법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매우 낮으며, 정당과 연계된 강성노조의 잦은 파업 등으로 노사관계가 불안정함. 세계경제포럼(WEF)의 2013-14년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네팔의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 경쟁력은 148개 평가대상국 중 133위를 기록함.

## 나. 성장잠재력

### □ 물적·인적 인프라 취약으로 경제성장 제약

- 네팔은 전력 및 교통 등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하여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세계경제포럼(WEF)의 2013-14년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네팔의 인프라 부문 경쟁력은 148개 평가대상국 중 144위를 기록하였으며, 전력 부족으로 하루에 12시간 정도 정전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네팔의 교육 부문 경쟁력은 148개 평가대상국 중 130위를 기록함. 15세 이상 문맹률이 40%에 달하고 중등교육 등록률은 43.5%에 그치는 등 교육 환경이 열악하여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거대시장 접근성 및 풍부한 관광·수력자원 보유

- 네팔은 중국 및 인도와 국경을 접하여 거대시장 접근이 용이하며,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임가공 수출, 중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물류산업 분야 등에서 경제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 네팔은 롬비니(부처님 탄생지), 히말라야 등 풍부한 문화유산과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음. 관광산업이 서비스 수입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왕정이 폐지된 2008년 이후 인도 및 중국 등으로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
- 네팔은 세계 2위 규모인 42,000MW의 잠재수력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개발률이 2% 미만에 불과하여 향후 발전소 건설 등 개발잠재력이 풍부함.

### 다. 정책성과

#### □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지속

- 네팔 정부는 2011/12년에 새로운 투자위원회(Investment Board)를 설립하고 2012/13년을 '네팔 투자의 해'로 지정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민영화·자유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IFC의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 평가에 따르면 네팔의 기업경영여건 순위는 2009년 123위/183개국에서 2012년 108위/185개국으로 개선됨.
- 네팔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시장경제체제를 적극 도입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공기업 민영화, 수력발전 등 주요 산업의 개방, 면허제도 및 규제 간소화, 외국인의 기업 100% 소유 허용,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외국 금융기관 설립 허용 등의 개혁을 추진함.

###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경 상 수 지	536	-378	-181	909	-25
경상수지 / GDP	4.2	-2.4	-1.0	4.7	-0.1
상 품 수 지	-2,707	-4,078	-4,470	-4,605	-5,540
수 출	904	849	960	1,008	1,077
수 입	3,611	4,927	5,430	5,613	6,617
외 환 보 유 액	2,769	2,937	3,631	4,307	N.A.
총 외 채 잔 액	3,683	3,797	3,956	4,387	3,996
총외채잔액/GDP	28.7	23.8	20.8	22.6	19.6
D. S. R.	3.5	3.4	3.2	3.4	3.3

자료: IMF 및 OECD.

#### □ 상품수지 적자를 관광 수입 및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으로 보전

- नेपाल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소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직물 및 농산물 등 저부가가치 제품을 주로 수출하여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관광 수입 및 해외근로자의 송금 유입으로 상품수지 적자를 보전하여 경상수지는 소폭의 적자 또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1/12년 경상수지는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 증가 등으로 GDP 대비 4.7%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12/13년에는 쌀, 의류 등의 상품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는 GDP 대비 -0.1%를 기록하여 적자로 전환됨.

#### □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편

- नेपाल의 외환보유액은 외국인투자 증가, 지속적인 해외근로자 송금 및 원조 자금 유입 등으로 2011/12년 말 기준 약 4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월평균수입액의 6.8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안정적인 수준임.
- 2012/13년 기준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19.6%, D.S.R.은 3.3%를 기록하는 등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편인 것으로 분석됨.

- 총외채의 대부분이 장기 공적외채이며 민간 차입은 미미한 수준임.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금융기관 채무가 공적외채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자채권국 채무 중에서는 대 일본 채무가 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동향

##### □ 왕정 폐지 후 공화제로 전환

- 2008년 4월, 내전 종식 후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이 실시되어 급진 네팔공산당이 제1당이 되었으며 총선 다음 달 소집된 제헌의회에서 왕정 폐지가 결의됨으로써 왕정에서 공화제로 전환되었음.
- 2008년 출범한 제헌의회는 헌법 제정에 대한 정당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수차례 임기가 연장되었으며, 결국 헌법 제정에 실패하고 2012년 5월 임기 만료로 해산됨.

##### □ 201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정국 불안 지속

- 급진네팔공산당(UCPN-Maoist), 네팔의회당(NC), 온건네팔공산당(CPN-UML), 마드헤시(Madhesh) 연합 등 4개 주요 정당들은 2013년 11월 총선 실시 및 헌법 제정을 목표로 2013년 3월 임시 선거내각을 출범시킴.
- 총선 일자가 11월 19일로 결정되는 등 제헌의회 구성에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33개 군소정당 연합이 임시 선거내각 구성 및 4개 주요 정당 위주의 선거 준비에 반대하며 총선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어 정국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2. 사회동향

### □ 티베트인들의 독립시위 및 높은 실업률로 사회불안 가능성 잠재

- 네팔은 티베트 지역과 인접하여 망명 티베트인들에 의한 반중국 시위가 자주 벌어지고 있으며, 네팔 정부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며 티베트인들의 반중국 시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고 있음.
  - 2008년 8월 카트만두에서 티베트인들이 중국 영사관 진입을 시도하며 현지 경찰과 충돌해 1,300여 명이 체포되었으며, 현재도 티베트인들의 시위 및 분신 시도가 지속되고 있음.
- 실업률이 약 46%로 매우 높으며 국민의 약 25%가 절대빈곤(하루 생활비 1.25달러 이하) 상태에 놓여 있어 사회불안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3. 국제관계

### □ 인도, 중국 등과의 관계 강화 노력 지속

- 네팔은 정치·경제적으로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인도는 급진네팔공산당의 집권에 따른 자국 내의 공산세력 확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2011년 10월 투자 촉진 및 보호 협정을 체결하는 등 관계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네팔 내 인도의 과도한 영향력 견제를 위해 네팔과 중국은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중국은 급진네팔공산당을 지지해왔으며, 2013년 6월에는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이 네팔을 방문하여 네팔 내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약속함.
- 미국은 급진네팔공산당을 테러집단으로 지정하는 등 네팔과 마찰을 빚어 왔으나, 2012년 9월 급진네팔공산당을 테러집단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네팔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2013년 3월 말 기준 네팔에 대한 OECD 회원국의 ECA 승인금액은 총 23.7백만 달러(단기 18.9백만 달러, 중장기 4.8백만 달러)이며 리스케줄링 및 연체 경험이 없는 등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보이고 있음.
- 한편, 2013년 6월 인도 수출입은행이 네팔의 라후가트(Rahughat) 수력발전, 코시(Koshi) 및 솔루(Solu) 회랑 송전선 등 3개 전력 프로젝트에 1.6억 달러 차관 제공을 승인하는 등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지원도 지속되고 있음.

### 2. 국제시장평가

####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OECD는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네팔의 국가위험도등급을 7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S&P, Moody's, Fitch 등 주요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네팔의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있음.

\* OECD 평가등급: 7(2010.4) → 7(2011.3) → 7(2012.3) → 7(2013.6)

####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수은: 공공부문에 대한 부보위험 제약조건만 가능  
(Restricted public sector cover available only)
- 영국 ECGD: 인수 불가(No cover available)
- 독일 Hermes: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Restrictions will apply)
- 네덜란드 Atradius: 인수 가능, 재량한도 없음  
(Cover available, no discretionary limits)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4년 5월 15일 (북한과 동일)

□ 주요협정: 영사협정(1969), 무역협정(1971), 이중과세방지협정(2001),  
항공협정(2004), 문화협정(2005)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3> 한·네팔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對 네팔	2010	2011	2012	주요품목
수 출	32,293	37,842	19,045	컴퓨터, 정전기기, 레일 및 철구조물
수 입	905	2,237	1,738	기타섬유제품, 의류, 영상기기
합 계	33,198	40,079	20,783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와 네팔과의 교역규모는 미미한 수준으로, 2012년에는 자동차 등의 수출 급감으로 교역규모가 전년 대비 48.3% 감소한 2,078만 달러를 기록함. 2012년 기준 네팔은 우리나라의 제161위 수출대상국이자 제158위 수입대상국임.
- 우리나라의 대 네팔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3년 6월 말 누계 기준 10건 (신규법인 수), 2,752만 달러(투자금액)를 기록하고 있으며, 네팔은 우리나라의 제99위 직접투자 대상국임.

## V. 종합의견

- 네팔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정치 불안정, 인프라 및 제조업 기반 미비 등으로 3~4%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농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원조자금 및 해외근로자 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
- 총외채의 대부분이 장기 공적외채이며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낮은 D.S.R. 및 GDP 대비 총외채잔액 등을 고려할 때 외채상환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외채상환태도도 양호함.
- 2008년 공화제 출범 이후 총선과 대선 실시로 새로운 정부의 기틀이 수립되었으나 제헌의회는 헌법 제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2012년 해산됨. 2013년 11월 총선 실시를 목표로 임시 선거내각이 구성되었으나 선거방식 등에 대한 정당 간 의견 불일치로 정국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조사역 송 호 석 (☎02-3779-5709)

E-mail: [hssong@koreaexim.go.kr](mailto:hssong@koreaexim.go.kr)